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유적지

베레케토바 아케르케
카자흐 국립대 졸업생

지도교수: 김영경

Title: *Historical Sites of Kazakhstan and Korea*

Author: *Bereketova A.Zh.,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Almaty, Kazakhstan*

Abstract: *Article is headlined as “Historical Sites of Kazakhstan and Korea”. As the title implies the article describes some of the most valuable cultural treasures of Kazakhstan and Korea. Article gives detailed information of the history, features and meaning of these treasures. Additionally there were mention own feelings of author after visiting historical sites in Gyeongju as Seokguram, Bulguksa, Cheomseongdae, Cheonmacnong. Originally all of these places were tied with religion and author as comparison listed identical historical places in Kazakhstan. A mention should be made to Mausoleum of Khoja Ahmed Yasawi, Arystan Bab Mausoleum. Author give much attention to exploring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safely deliver to the next generation.*

The article is of great help to students of Korean language faculty and for all who have interest on historical valuable sites of Korea and Kazakhstan.

Keywords: *historic site, mausoleum, cultural treasure, world heritage, masterpiece*

주제어: *유적지, 대영묘, 문화재, 세계유산, 걸작, 경주, 투르키스탄*

들어가는 말

유적지는 과거 인류가 남긴 잔존물로, 형태가 크며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신전, 고분, 주거지, 거석기념물 등을 의미한다.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적지 여행을 하노라면, 그 시대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철새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당시 걸작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지’를 세계 각국에서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뿌리와 문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

서 그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 작업을 많이 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후손의 의무일 것이다.

이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유적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유적지 경주는 직접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행문 형식으로 서술해 보았다.

1. 한국의 대표적인 유적지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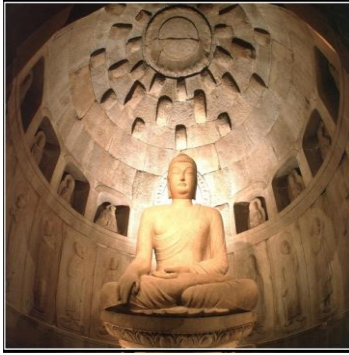
한국에 방문했을 때 2 개월 정도 서울 시내만 돌아다녔다. 당시 꼭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던, 오래 전부터 목표했던 경주에 가기로 결심했다. 낮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서 저녁 9 시에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약 두 시간 동안 KTX 로 서울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경주에 도착했다. 11 월 이 되어 쌀쌀해진 서울 날씨와 달리 경주는 매우 따뜻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기차에서 내려서 곧장 40 분 가량 걸리는 숙소로 이동했다.

다음날 저녁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꼭 봐야 할 것들을 구경 못 할까 하는 걱정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경주 여행을 시작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들어봐서 그런지 경주 시내를 걷는 것만으로도 매우 설렜다. 단풍이 알록달록한 나무들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옛 동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경주는 기원전 57 년부터 서기 935 년까지 56 명의 왕이 다스리며 천년 동안 왕조를 이어 온 신라의 수도로, 한국문화의 원형이 되는 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도시이다.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 고분들만 보더라도 역사 문화 도시 경주의 독특함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주 도심에는 높이가 23 미터에 이르는 것(황남대총)부터 지상에서 식별이 어려운 것까지 신라 고분 150 여 개가 남아 있다. 유네스코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를 역사 유적지구로 선정하여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¹

¹ http://m.cha.go.kr/cyber/html/HtmlPage.do?pg=cy01/cy0103.html&=CY_01_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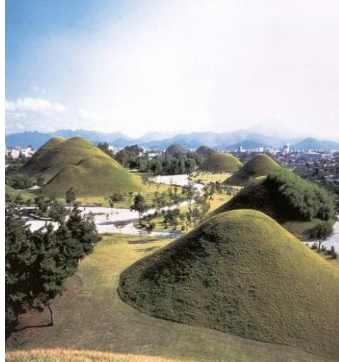
석굴암



첨성대



불국사



대릉원

1) 대릉원

경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석굴암을 비롯하여 불국사, 첨성대,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등 탄성을 자아내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또한 어느 계절에 가도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유적지는 대릉원이다.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들과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는 장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웅장한 고분들을 산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2) 첨성대

첨성대는 경주시 반월성 동북쪽에 위치한 신라 중기의 석조 건축물로, 선덕여왕 때에 세워진,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져 있다.² 화강석을 가공하여 기단 위에 27단의 석단을 원통형 곡선으로 쌓아 올려 그 위에 방형의 장대석을 두 겹으로 우물정자와 같이 엮어 천문을 살펴도록 시설했다.³

² <http://ko.wikipedia.org/wiki/첨성대>

³ 김영주, "공론권으로서의 첨성대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2007.3, p.48.

첨성대는 대릉원 뒤편을 찾아 길 건너편을 따라 가면 나온다. 경주에 있는 유적 중 한 번도 고치거나 수리하지 않은 유물이라 한다. 이 곳은 신라시대 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별을 관측했다고 한다. 또한 단단하고 쌓여 있는 362 개 돌이 음력 1 년 길이와 일치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3) 불국사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사람들이 사는 땅 위에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찰이다.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서기 751 년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하여 서기 774 년 신라 혜공왕 때 완공하였다.

토함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자리한 불국사는 심오한 불교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기념비적인 예술품이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⁴

불국사의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 범영루, 자경루, 다보탑과 석가탑, 무설전 등이 있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양문 등이 있는 구역이다.

불국사에 있는 높이 8.2m 의 삼층석탑인 석가탑은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다. 높이 10.4m 의 다보탑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정교하게 다듬은 여러 석재를 목재건축처럼 짜맞추었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국보 20 호), 불국사삼층석탑(국보 21 호), 연화교 및 칠보교(국보 22 호), 청운교 및 백운교(국보 23 호),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26 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 호) 등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불국사는 1995 년 12 월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학술적·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⁶

불국사에는 여러 문화 유적이 많지만 특히 절 앞마당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기억에 남는다.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으로 빼어난 아

⁴ Респу блика Корея Цифры и Факты. Издание 2011 года, 58-63с.

⁵ http://www.unesco.or.kr/heritage/wh/korwh_bulguksa.asp

⁶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고시제 2009-116 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및 '사적 및 명승' 해제>, 대한민국 관보 제 17157 호, 2009.12.21, p.69.

름다움을 자랑한다. 반면 옆에 있는 석가탑은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아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초라하지 않고 위엄이 느껴지는 탑이다.

4)석굴암

석굴암은 부처님 불상이다. 석굴에는 본존불 중심으로 천부상, 보살상, 나한상, 거사상, 사천왕상, 인왕상, 팔부신중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곳은 불교 세계의 이상과 과학기술 그리고 세련된 조각 솜씨가 어우러진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석굴암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신라 예술의 극치이자 동양불교미술의 대표적 작품이다.⁷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은 아스팔트가 아닌 흙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었으며 지나간 세월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나 느껴졌다.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스팔트로 덮이고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도로 변경을 많이 한다. 비 오는 날씨에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석굴암에 올라가는 길의 도로가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런 소소한 부분도 석굴암의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이다.

약 15-20분 정도 걸어 불상이 조각된 곳에 도착했다. 여기서 경주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런 높이에 널리 펼쳐져 있는 풍경과 배경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또한 아름답게 조각된 불상이 마치 경주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좋은 기분을 가지고 다시 불국사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이 때까지 경주의 문화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곳이 다른 곳에서 약 30-4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경주는 시내 방방곡곡이 문화재이고 자연과 조화되어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에게 들었던 바로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가 본다고 한다. 10대, 20대, 30대에 보고 느끼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지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경주는 색다른 인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봄비는 인과 속에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데에 보내는 시간의 일부를 역사적 유적지를 보는 데 보낸다면, 문화적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이 될지 않을까?

천년고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경주를 다니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단순히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일정 탓에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선인들의 발자취를 보며 역사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행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또한 덕분에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자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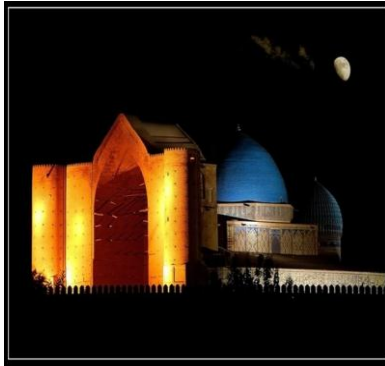
⁷ Респу блика Корея Цифры и Факты. Издание 2011 года, 148-149с.

변영이 가능토록 했음을 느꼈다. 가는 곳마다 인상 깊었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피로 대신 오랜만에 도시와 떨어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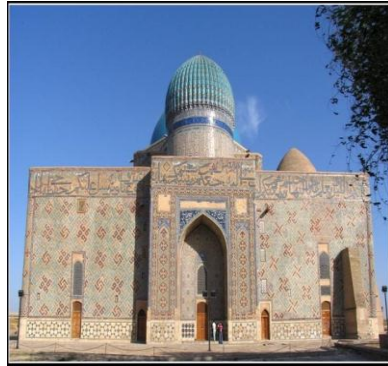
2. 카자흐스탄의 유적지

1) 투르키스탄(Turkistan)

투르키스탄은 2,000 년의 역사를 가진 남부 도시로, 카자흐인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이름은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이며, 이곳에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의 유적지가 있다. 옛 이름은 야시였고 17 세기 타우케 한 시절 카자흐 한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대영묘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



탕관 (Tai kazan)

2)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유적지는 동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는 칠크트 인근의 사이람에서 이브라힘 아타의 아들로 1103 년에 태어난 시인이자 설교자였으며 1166

년에 사망했다. 233년 후, 시인이자 설교자였던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를 존경한 테무르 한은 감탄할 만한 규모의 대영묘를 건설하기로 한다. 본 대영묘는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무덤의 일부를 포함하여 건립되었다. 비례 관계 단위로 살펴보면 건설 예술의 복잡함을 간직한 대영묘는 고대의 독특한 건축물이다.

대영묘를 건설하면서 생긴 일화도 있다. 일화에 따르면 테무르 한이 대영묘의 벽을 짓기 시작했을 때 폭풍이 불면서 벽을 붕괴시켰다고 한다. 이 사건은 벽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도 반복되어 벽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날 대영묘를 건립하고자 했던 테무르 한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고 호자 아흐메트의 스승이었던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를 먼저 지으라고 충고를 했다고 전해진다. 테무르 한은 꿈에서 노인이 말했듯이 아르스탄 바브 영묘를 지은 후에 아흐메트 야사위 영묘를 공사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테무르 한은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대영묘 설계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건축물의 규모, 돔의 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돔 지붕은 무슬림에게 통일과 환대의 상징이다. 그래서 돔의 크기와 모양에 많은 신경을 쓰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다. 돔이 커야 멀리서 오던 나그네가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접하는 마음이 지붕만큼 넓고 크다는 의도를 가진다.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대영묘의 돔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돔은 비색으로 장식되고, 전면은 파랗고 하얀 잿물로 된 벽돌로 장식되었다. 이렇게 건립된 대영묘는 중앙아시아의 기후와 배경이 아름답게 조화되면서 구경하러 간 사람들에게 묘한 희열감을 느끼게 한다.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대영묘에는 총 30개의 장소가 있다. 예를 들자면 탕관, 우물,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의 묘, 기타 묘 총 43개, 지하 모스크 등이 있다.⁸

탕관(큰 주전자 같은 것)은 이곳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장소이다. 카자흐 민족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는 시대에 상관없이 우선적이었던 것은 그 탕관의 크기만 보고 알 수 있다. 탕관(Tai Kazan)은 높이 39m, 지름 2.2 m, 무게 2t 이고, 자리 잡은 벽의 흰색은 평정심, 경외심 및 엄숙함을 뜻한다. 실크로드에 중심부에 있었던 이 곳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장식된 도서관, 목욕탕, 식당, 공예소 등이 있다.⁹

침켄트에서 150km 떨어진 오토라르라는 도시 근교에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의 스승이자 종교적 지도자였던 12 세기의 설교자 아르스탄 바브의 대영묘가 위치되어 있다.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는 마르펠로 나무 기둥으로 건설되었다. 앞서 소개한 일화의 영향으로 순례하러 온 사람들은 먼

⁸ Қожа Ахмет Ясауи және оның кесенесі. Буклет. – Түркістан: «Әзірет Сұлтан» мемлекеттік тарихи-мәдени қорық-мұражайы. – 2009. 19 с.

⁹ Тайқазан. Буклет. Қожа Ахмет Ясауи кесенесінің жәдігерлері. – Түркістан. – 2009. – 12 бет.

저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대영묘를 방문한다.

투르키스탄은 먼저 호자 아흐메트 야사위 및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가 떠오르는 곳이다. 아흐메트 야사위 및 아르스탄 바브 대영묘는 실크로드에 있으며 카자흐인뿐만 아니라 순례하러 오는 온 무슬림들이 존경하는 곳이다. 이곳을 제 2의 메카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직접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맺는 말

유적은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에 소개한 유적지들도 처음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예를 들어 종교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된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 및 발굴, 보존하고자 하는 활동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적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즉,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역사와 문화를 알고 아름답게 장식된 문화재와 걸작을 보기 위해 유적지를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참고문헌

1. 김영주, "공론권으로서의 첨성대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2007.3.
2.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고시제2009-116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및 ‘사적 및 명승’ 해제>, 대한민국 관보 제17157호, 2009.12.21.
3. Респу блика Корея Цифры и Факты. Издание 2011.
4. Қожа Ахмет Ясауи және оның кесенесі. Буклет.-Түркістан: «Әзірет Сұлтан» мемлекеттік тарихи-мәдени қорық-мұражайы. 2009.19 с.
5. Тайказан. Буклет. Қожа Ахмет Ясауи кесенесінің жәдігерлері. Түркістан. 2009. 12 бет.
6. http://www.m.cha.go.kr/cyber/html/HtmlPage.do?pg=cy01/cy0103.html&=CY_01_03
7. <http://www.ko.wikipedia.org/wiki/첨성대>
8. http://www.unesco.or.kr/heritage/wh/korwh_bulguksa.asp